

## “ 교회세속화를 경계한다 ”

■ 이종윤 원로목사

### - 영역 자주권 지켜 거룩성 회복해야 -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한 나라의 왕위의 존폐까지 명하게 되자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세운 미합중국은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에 넣어 서로의 영역을 침범치 않고 존중해 주는 법을 만들어 선포했다. 종교개혁자들의 소위 영역자주권(sphere sovereignty)을 주장한 이론과 합치된 것이다. 교회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외교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쳐야 하고 무엇보다 그들이 성경원리와 배치된 방향으로 나가거나 불의와 부정한 방법으로 흐르게 될 때엔 가차없이 선지자적 책망을 하여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그러나 교회라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목사가 이발소에 가면 이발사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자주권이 있는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도 영역자주권을 인정하신 것이다. 반대로 국회에서 교회 목사에게 이번 주일 설교는 이렇게 하라는 공문이 왔다면 그것은 교회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로 교회는 그런 제안은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교인 개인이 정치 참여나 사회활동은 충실하게 할 수 있지만 교회공동체의 이름으로 교회 본래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은 안 되는 것처럼 교회이름으로 정당을 만들거나 영리목적인 상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어 교회는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최근 어느 회의 자리에서 모임 후 교회지도자들이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말을 들었다. 교회 내에 카페를 개설하여 10억을 벌여 극빈자를 도왔다면서 이런 선행은 언론이 크게 보도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을 듣고 필자는 어안이 병병해 그 목사님께 “당장 카페를 단던가 돈이 필요하면 교회 간판을 내리십시오” 라는 말을 했다. 교회가 구제한 것이 잘못이 아니다. 현금과 세금이 다르듯 상업적 수단을 동원하여 번 돈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해도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간혹 1년에 한 두 차례 바자를 열어 얻은 금액으로 특별목적에 쓰는 경우와는 사뭇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본래 바자는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물품, 또는 입던 의류 등을 남을 위해 내어놓고 그것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과 나누는 것이므로 초대교회가 행한 유무상통의 정신과 같은 것이다. 교회는 수입을 올리기 위한 현금 종류를 개발한다거나 강요하는 것은 자원하는 심정과 감사로 하나님께 바치는 현금 정신과는 다른 것이다. 커피를 주일에 교회에서 판매하면서 현금 내는 마음으로 많이 사서 드시라고 광고한다면 주일 성수 신앙은 이미 깨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 돈을 버는 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교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불법행위다. 세상이 바뀐다 해도 성경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얼마 전 서울의 강남 소재 몇몇 교회들이 이와 비슷한 영업행위를 하므로 국세청의 고발까지 당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벌금까지 낸 사례를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도 명분은 돈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소통하고 선한 사업에 쓰려고 그 같은 일을 했다고 한다. 한국교회의 세속화가 바로 이런 것이다. 중세교회의 타락도 베드로 성전 건축기금 모금을 위해 면죄부를 만들어 판매하고 성직을 매매하고 교회가 세상적 물질에 관심을 갖게 되자 결국 부패한 교회로 전락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우리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심으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교회의 거룩성을 요구하셨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이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교회의 수적 성장을 위해서라면 평잡는 놈이 매라는 식으로 무슨 방법이든 동원할 수 있다면 세속화의 가능성은 점점 가속화 될 것이다. 예배 시 찬송을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pop음악으로 대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 예배가 아니라 사람 기분을 돋구는 일이 되는 것임으로 한국교회를 빠르게 세속화시키는 동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를 세워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떠나 세상적 방법을 따라가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노아의 방주는 물 가운데 떠 있었으나 방주에 구멍이 뚫리지 않아 홍수에 침몰하지 않고 구원의 방주역할을 했다. 세상과 소통이라는 명분으로 교회의 담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목숨걸고 기도하자.

-한국장로신문 [1339호] 2012년 10월 13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	John 4:24	Pasto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ess A. S. Jang
Hymn	36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John 7:37-52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Anthem		Congregation
Sermon	“Christ's Invitation of the Spirit as the Rivers of Living Water”	Pastor
* Hymn	526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윤누가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선 교 사 강아름주하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마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말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중일백순미(타이완동자), 훈쿠아 탕 탕 쥘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잔다 사운 키움 랑 호라 베베 뱀 비에 마웅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뜨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뜨 린쯔 수관롄 방글라데세, 김택식 윤용호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b>대한예수교 서 울 교 회</b> 장 로 회		
	<b>SEOUL PRESBYTERIAN CHURCH</b> 원로목사 이 종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박 노 철 Senior Pastor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Park, No Cheol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 ”

■ 출 15:1-5, 렘 4:1-4, 시 33:10-22, 마 25:24-30

올해로 우리나라는 해방 72주년, 건국 69주년이 되었습니다. 요한 칼빈 목사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영육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후로 한국교회는 항상 국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1919. 3. 1 만세 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교회가 있는 곳마다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70년대 교회의 부흥기도 운동은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선교사수 49000명을 넘고 있고, 신학자 수 또한 4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결코 부실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세계는 대한민국을 `기적의 나라' 라고 부릅니다. 세계 최빈국으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고, 2차 대전이래 세계사에서 최고의 성취를 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기도의 열매에 감사해야 합니다.

1. 감사하는 마음 (We need a sense of gratitude)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들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신32:7).  
 과거를 함부로 심판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것이 모세의 충고입니다. 역사는 당시 상황에서 그 현장의 문맥에 근거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시대 사람도 다른 시대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시대와 체제가 틀린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의 잣대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제 말기에 교회는 순교, 낙향, 망명, 친일이 아니면 모멸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그 당시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은 이는 원망, 시비보다 감사를 합니다. 감사가 없는 백성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2. 더 큰 책임이 필요하다 (We need a greater consciousness of our responsibility)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받은 은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아간은 욕심에 끌려 자기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로마와 애굽도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편리주의, 자만심이 오늘날 우리 민족을 이토록 약하고 무력하게 타락 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을 때에라야 국가에 제대로 된 기강 서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더 높고 고상한 하나님 신앙이 필요하다 (We need a higher, nobles and more sincere faith in God)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삼상 17:46).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일고 국제적으로 시대적 상황이 어려운 이 때 역사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군사대국, 경제대국 보다 예수 잘 믿고 세계 복음화에 공헌하는 나라로 세워져야 합니다.

맺는 말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마음, 책임의식, 하나님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마음 가운데 채우는 백성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들이 대한민국을 다스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에 따라 복음화 된 통일 조국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드리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이종윤 원로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b>I</b>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이관규 장로
<b>II</b>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노문환 장로
<b>III</b>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서문석 장로

오후 5시 .인도: 서명철 목사, 설교: 이준용 원로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	골 2:6-7... 인도자
기 원 Invocation .....	인도자
* 찬 송 Hymn .....	5(3).... 다함께
* 산양고백 Apostles' Creed .....	다함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	15(시 27)... 다함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함께
기 도 Prayer .....	말은이
찬 송 Hymn .....	27(27)...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렘 8:18-22... 인도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함께
봉헌 Offering .....	다함께
* 봉헌송 Offering Hymn .....	634(70) ... 다함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실교자
찬 양 Anthem .....	찬양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함께
설 교 Sermon ...	길르앗의 유향과 의사... 박순오 목사
* 찬 송 Hymn .....	323(355)... 다함께
* 축 도 Benediction .....	실교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함께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96:1-2 ..... 인도자
찬 송 .....	449(377) ..... 다 함 께
기 도 .....	임대중 집사
성 경 .....	계 6:1-8 ..... 인도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이기고 또 이기는 자" ... 설 교 자
* 찬 송 .....	93(93) ..... 다 함 께
* 축 도 .....	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	강은경 권사
성 경 .....	벧전 4:12-19 ..... 인도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그리스도인의 고난" ... 설 교 자
기 도 .....	강은경 권사
성 경 .....	벧전 4:12-19 ..... 인도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그리스도인의 고난"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안박수강

설 교 .....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현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일	
III 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최수황	박수강	윤주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지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출 15:2)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호 산 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원정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b>I</b>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b>II</b>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b>III</b>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b>II</b>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 교 회 소 식

### ◆ 모 임

1. 살롬권사회 월례회 / 16일(주) 오후3시20분 502호

### ◆ 알 림

1. 1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주일 오후 1시-2시30분
3. 603호 예배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4. 609호 예배  
디아스포라부: 주일 오후 1시-2시
5.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6. 706호 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7.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8.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9. 의료 상담 / 김봉배(외과, 통증클리닉), 오병호(피부과) 주일 오전 10시4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0.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11. 박순오 목사 소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미국 Westminster 신학교 수료  
계명대학교 대학원 Ph.D. (실천신학)  
전) 대구서현교회 담임목사  
현) 나눔과기쁨 상임대표  
현) 전국 설교클리닉 대표강사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 결 혼 1. 최형준 군(3교구 최인환 홍정란 권사의 차남)과 김혜진 양(김윤식 정경숙 씨의 차녀) / 8월26일(토) 오후3시 더리버사이드호텔 6층 몽블랑홀(6710-1100) / 3호선 신사역 하차5번 출구
◆ 장례 1. 故 오의섭 집사(12교구 오광환 장로의 부친, 이안순 권사의 시부) / 8월16일(수) 별세, 19일(토) 발인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920명	268명	263명	1,451명	164명

## 수입, 지출 내역보고(8/13)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8월 13일	헌금	31,658,000	
"	특별예배비		67,740
"	찬양운영비		120,000
"	교회학교운영비		261,000
"	선교비		11,578,500
"	경조비		70,000
"	비전2020		4,004,200
"	출판비		270,000
"	통신비		458,970
"	차량유지비		681,100
"	복리후생비		93,360
"	수도광열비		5,600
"	수선유지비		2,050,000
"	식당운영비		1,236,000
"	합 계	31,658,000	20,896,470